

승실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1번

✎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도덕적 판단의 원천과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십시오.
(700±70자, 40점)

[가]

시리아 어린이들이 받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버즈피드 등은 터키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세계에 시리아 아이들의 고통을 전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에 담긴 것은 아디 후데아라는 4살 여자아이다. 후데아는 두 손을 들고 있고, 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터키 기자 오스만 사을리는 터키와 인접한 시리아의 난민촌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자, 아이는 총을 든 것으로 알고 두 손을 번쩍 든다. 카메라마저 총기로 알게 만든, 어린 나이에 낫선 사람 앞에서 살려달라는 뜻으로 손을 들게 만든 것은 처참한 내전이였다. 사을리는 난민촌에서 찍은 아이들 사진이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을 통해 더 잘 볼 수 있다. 죄 없는 아이들은 감정을 더 잘 보여준다.”

터키 신문에 실렸던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세계에 퍼져나갔다. 나디아 아부 샤반이라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여성 사진기자가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렸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일주일 새 1만 1,000회 이상 리트윗됐다.

[나]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 가족 모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를 일구는 기초”이므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권을 가진 자국의 사법 재판소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노령이나 불가항력적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겪는 생계 곤란을 당한 경우에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머니와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

흠은 도덕적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즉 그는 도덕적 선악이 지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是認)의 감정과 부인(否認)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선악은 도덕적 판단 대상인 사람의 행위나 품성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 즉 도덕적 감정에 있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도덕적 감정이 개인의 주관성을 넘어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까닭은 공감(sympathy) 덕분이다. 흠에 따르면, 공감이란 우리가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도록 해 주는 자연적 성향이다.

공감은 우리의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을 느끼는 타인을 볼 때 우리는 그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관념을 갖게 되고, 이 관념이 우리 내부에서 타인과 같은 감정을 일으킨다.

[라]

인간은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이중적 존재이므로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필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명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덕 법칙은 명령 중에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명령, 즉 정언 명령의 형태로 제시 된다. 어떤 조건이 붙은 명령, 예컨대 “네가 장기적 이익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가언 명령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가언 명령에서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법칙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의무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다. 만약 어떤 준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 준칙은 각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에 불과하다.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원리만이 의지를 규정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위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입법하는 자이며 우리 자신이 세운 법률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자율적 주체이다. 신 및 기타의 힘, 충동, 권위 있는 문헌, 부모의 요구, 사회 관습, 국가의 법률 등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모든 외적 힘들은 의지의 타율적 규정들에 불과하며 타자가 부여한 우리 행동의 원인들이다.

승실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2번

✎ 제시문 [사]의 아이히만의 자기변호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의 두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60점)

- ▶ 조건 1: [문제 1]의 한 입장과 제시문 [마], [바]를 근거로 활용할 것.
- ▶ 조건 2: [문제 1]의 두 입장 중 제시문 [바]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장을 택하여 논할 것.

[마]

스탠리 밀그램은 “나는 알고 싶었다. 왜 사람들이 비인간적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왜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라며 실험을 고안했다.

1963년 그는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했다.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교사 역할을, 다른 한쪽은 학생 역할을 맡기고, 학생에게는 암기해야 할 단어를, 교사에게는 테스트할 문제들을 주었다. 그리고 교사는 문제를 틀린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한 후 오답이 나올 때마다 전압을 높이도록 했다. 칸막이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 실험이 시작되자 칸막이 너머에서는 비명과 욕설, 심지어 불길한 침묵이 계속됐지만 실험은 강행되었다. 실험 주관자는 망설이는 교사들에게 계속 지시대로 할 것을 종용했다. 실험 팀은 원래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도중에 실험을 거부하리라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원자의 65%가 권위자의 지시를 끝까지 따랐다.

밀그램에 따르면 인간은 권위적 체계 속에서 이른바 대리자적 상태(agentive state)에 들어간다. 이때 인간은 자신을 권위에 순응하고 권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진다.

[바]

소로(Thoreau, H. D., 1817~1862)는 시민 불복종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그가 죽은 뒤 간디와 영국의 노동 운동가들, 마틴 루서 킹과 같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소로는 불의한 국가 권력과 법률에 대해 불복종함으로써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을 거부하면서도 폭력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지금도 전 세계인의 양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기초로 끊임없이 성찰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소로는 양심의 법이 정부의 법보다 한층 고차원의 법이며, 두 법이 충돌한다면 시민은 정부의 법보다 양심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게 의무라고 주장했다. 정당하지 않은 법이 존재한다면 시민은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불복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동료 시민에게 잘못된 것을 자각시켜, 올바르게 정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사]

아이히만은 독일이 패전한 후에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 재판을 참관한 아렌트(Arendt, H., 1906~1975)는 자신의 저서『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칸트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변호했다고 쓰고 있다. 아이히만은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한다.”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의무에 대한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다음은 재판에서 검사와 아이히만이 나눈 문답 중 일부이다.

검사 : 피고인의 본명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스 계획의 집행 책임자로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 제가 본 피고인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해 직업학교도 세우는 등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검사 : 그렇다면 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까?

아이히만 : 저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으며,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검사 :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남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아이히만 :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